

Curating Design History

손주영(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
Sohn Jooyoung (Senior Curator,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1. 서론
2. 본론
 - 2.1. 디자이너 연구 방법의 지형 변화
 - 2.2. 역사 연구로서 큐레토리얼 실천 사례
 - 2.2.1. 재역사화를 촉구하는 참여관찰
 - 2.2.2. 구술사를 큐레이팅하기
3. 맺음말

p-ISSN. 2765-2572
e-ISSN. 2765-7825

투고일. 2021년 6월 24일
심사일. 2022년 1월 20일-2월 14일
게재확정일. 2022년 2월 19일

Received Date. June 24, 2021
Reviewed Date. January 20-February 14, 2022
Accepted Date. February 19, 2022

요약

이 글은 “디자이너 역사 연구의 주체에 따라 디자이너 연구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가치를 갖는가?”와 같은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 질문에 접근하는 필자는 산업디자인과 디자이너를 공부하고, 현재는 미술관에서 큐레이팅을 하고있다. 큐레이터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협업하면서 그들을 전시 기획의 실천 안으로 매개한다. 그래서 큐레토리얼 연구란, 지식의 위치를 찾아내는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형학적 탐사와도 같은 이 일들은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럼에도 ‘매개로서의’ 큐레이팅 자체는 역사 연구라 부를 수 없다는 평가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글로 서술되는 역사 연구 방식을 전시기획에 그대로 적용해도 될지는 늘 의문이다. 이 글은 대안적이고 실천적인 역사 연구 방법으로서 큐레이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디자이너 연구 방법의 지형도를 그려보며, 역사 연구 방법의 제스처로서 ‘관찰’에 초점을 맞춘 전시 기획 활동의 실천 사례들을 소개한다.

Abstract

This article started with questions such as “Do we need to change design history research methods depending on the main agents of design history research? If so, what value does that leave us with for studying design history?” In the past, I studied industrial design and design history, and I am currently working as a curator at a museum. Curators collaborate with researchers in various fields and often make them a part of the practice of curating. Therefore, curatorial studies are closely related to tracking down knowledge. This task, like topographical exploration, consumes a significant amount of energy. Nevertheless, there are some who believe that curating itself as a medium cannot be called historical research. That being said, it is always questionable whether the existing historical research method—which is described in writing—can be applied to curating.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examine curating as an alternative and practical method of historical research. The following body text draws a topographical map of design history research methods, and introduces practical examples of curating activities that focus on observation as a gesture of historical research methods.

1. 서론

디자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처음 접하는 디자인 역사 관련 글은 대부분 교육적 목적으로 서술되는 디자인서 연구론이다. 이후에 더 깊이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디자인사 전공자 혹은 비평가들의 실증적 연구물들을 읽게 된다. 이 모든 연구가 디자인사의 범주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각자 연구의 동기나 목적, 그리고 독자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조금씩 다르다. 디자인사 연구가 다양한 독자층을 만나려면, 서술의 형식은 보다 다양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디자인 역사 연구의 주체에 따라 디자인사 연구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가치를 갖는가?”와 같은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 질문에 접근하는 필자는 산업디자인과 디자인사를 공부하고, 현재는 미술관에서 큐레이팅을 하고 있다. 큐레이터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협업하면서 그들을 전시 기획의 실천안으로 매개한다. 그래서 큐레토리얼 연구란, 지식의 위치를 찾아내는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형학적 탐사와도 같은 이 일들은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런데도 ‘매개로서의’ 큐레이팅 자체는 역사 연구라 부를 수 없다는 평가가 있다.¹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글로 서술되는 역사 연구 방식을 전시 기획에 그대로 적용해도 될지는 늘 의문이다.

이 글은 이 한계를 넘어서는 실천적 역사 연구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디자인사 연구 방법의 지형도를 그려보며, 역사 연구 방법의 제스처로서 ‘관찰’에 초점을 맞춘 전시 기획 활동의 실천 사례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2. 본론

2.1. 디자인사 연구 방법의 지형 변화

“배넘(Reyner Banham)은 내 연구에 두 가지 영향을 미쳤다. 한 가지는 역사 연구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었다. 즉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대상을 선택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 가장 적절한 연구 방법을 찾는 일로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하며, 그 방법에는 무한에 가까운 다양성이 있다는 인식이다.”²

1996년 일본에서 출간된 『디자인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는 당대의 비평, 담론, 에세이, 대담 등을 엮은 책이다. 이 책의 편저자인 시마다 아쓰시(嶋田厚)는 디자인을 위한 좀 더 새롭고 적절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³ 4반 세기가 흐른 지금 한국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디자인 교육자이자 이론가인 윤여경은 ‘새로운 디자인 역사책을 써야겠다’며 자신의 책 서문⁴을 시작하였고, 디자인 교육자이자 큐레이터인 김상규도 한국디자인사저널의 논고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연구와 글쓰기’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디자인사 연구의 ‘새로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역사학이 역사 서술을 위한 정해진 규칙이나 고유의 기술 방법론 또는 전문용어조차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즉, 본래 일상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표본이 될 만한 대표적인 방법론들을 열거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방법론들조차 계속해서 갱신되어온 제안일 뿐이다.

디자인사 연구도 위의 경우와 비슷하다. 예술사조를 따른 양식(style) 중심의 서술에서 디자인을 분리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이다.⁶ 초기에 연대기적으로 작가를 나열하던 디자인사 서술은 디자인 교육자였던 헤스켓(John Heskett)이 산업, 경제, 사회, 문화의 거시사적 맥락 안에서 디자인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연구 방법을 바꾸었다.⁷ 비슷한 시기 영국 여류 디자인사가였던 스파크(Penny Sparke)는 존 헤스켓이 대중문화에 대해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⁸ 그 이후에 문화사적 연구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는 ‘취향’의 문제를 다루었다. 하지만 두 연구 모두 디자인의 존재론적 본질에 대한 탐구보다는 여전히 교육적 목적의 서술이었다는 한계를 드러냈다.⁹

한국의 디자인 역사 서술도 교육 담론으로부터 출발했다. 디자인 교육자 강현주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미대학보』 창간호에 정시화가 「바우하우스의 예술교육」(1966)을 발표한 것이 국내 첫 번째 디자인(사) 저술이라고 평가한다.¹⁰ 그러나 디자인 관련 사료의 부재로 인해 이후에도 오랫동안 한국의 디자인사 연구는 진전될 수 없었다. 이른바 자료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연구적 한계를 규정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맥락 속에 90년대 문화사적 접근의 물질문화 연구가 대안으로 등장했다. 물질문화 연구를 통해 일상생활의 사물과 개인의 삶을 엿보기 시작하면서 한국 디자인사 연구자의 수도 조금씩 늘어났다.¹¹

2.2. 역사 연구로서 큐레토리얼 실천 사례
물질문화사 연구는 문헌의 출처를 대신하여 주로 ‘관찰’에 근거를 둔다. 이로 인해 문화사 연구를

순진하다고 보는 시선이나 비판이 존재한다. 이것이 신뢰할만한 역사인가, 아니면 개인의 주관적 경험일 뿐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관찰을 감각적이며, 개별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시선은 대부분의 자료를 과학적이고 행정적으로 서식화할 수 있게 된 현대 사회에 이르러 더욱 심화되었다.

그런데도 역사 연구에서 ‘관찰’을 포용한다는 의미는 객관적 사실이나 과학적 근거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관찰’은 이론과 실천의 괴리를 극복하려는 역사학 연구 방법론의 하나이다. 특히 실천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관찰’이란, 타자화를 지양하며 사회적 연대와 이해 속에 감정적 기표로서 작용하는 등 동시대 역사 연구 범주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역사 연구 방법론으로서 ‘관찰’은 다시 ‘양적 관찰’과 ‘질적 관찰’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가 자료 수집 등을 포괄하는 연구를 가리킨다면, 후자는 해석에 해당한다. 오늘날에는 역사 연구의 재료와 그 결과물(기술된 역사)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카이브(자료)가 역사 연구 실천을 광범위하게 대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매체’로서 이해되는 오늘날의 아카이브는 벤야민(Walter Bendix Schönflies Benjamin)이 말하는 ‘기술 복제 시대’에 들어서 흔적들을 모으고 시각적으로 배치하는 일만으로도 원본성의 기능을 떠맡거나¹² 역사의 ‘시뮬라르크’ 혹은 ‘스펙터클’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아카이브를 무조건 공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으로 역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태도¹³는 분명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데이터를 해석하는 주체로서 개입하거나, 우연한 시간이나 기록의

1 최범, 「디자인사 연구의 과제와 방법: 왜, 무엇을 어떻게?」, 『Extra Archive: 디자인사연구』, 1권 1호, (한국디자인사학회, 2021), p.20: 디자인 평론가 최범은 ‘한국 디자인 00선’으로 제시되는 전시들이 사료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것 자체가 역사 연구인 것처럼 간주한다면 곤란하다고 못 박았다.

2 후지타 하루히코, 「역사 속의 현재」, 『디자인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디자인하우스, 2003), p.196

3 시마다 아쓰시, 『디자인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김난주, (디자인하우스, 2003)

4 윤여경, 『역사는 디자인된다』, (민음사, 2016)

5 김상규, 「21세기 전시에서 20세기를 기리는 방법」, 『Extra Archive: 디자인사연구』, 1권 1호, (한국디자인사학회, 2021), p.265

6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니콜라우스 페브스너, 『근대디자인의 개척자들』, 서치선·이권영, (대신기술, 1986), 레이너 배넘, 『제1기계 시대의 이론과 디자인』, 윤재희, 지연순, (세진사, 1981)

7 존 헤스켓, 『산업디자인의 역사』, 정무환, (시공아트, 2004)

8 페니 스파크, 『20세기 디자인과 문화』, 최범, (시지락, 2003)

9 Clive Dilnot, Lilian Sanchez-Moreno, “John Heskett’s Industrial Design: An Interview at Middlesex Polytechnic, 1981”, *Design Issues*, Vol.35 No.2, (2019): 이러한 지적에 대해 존 헤스켓은 초창기 디자인사 서술이 독립된 하나의 학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저술되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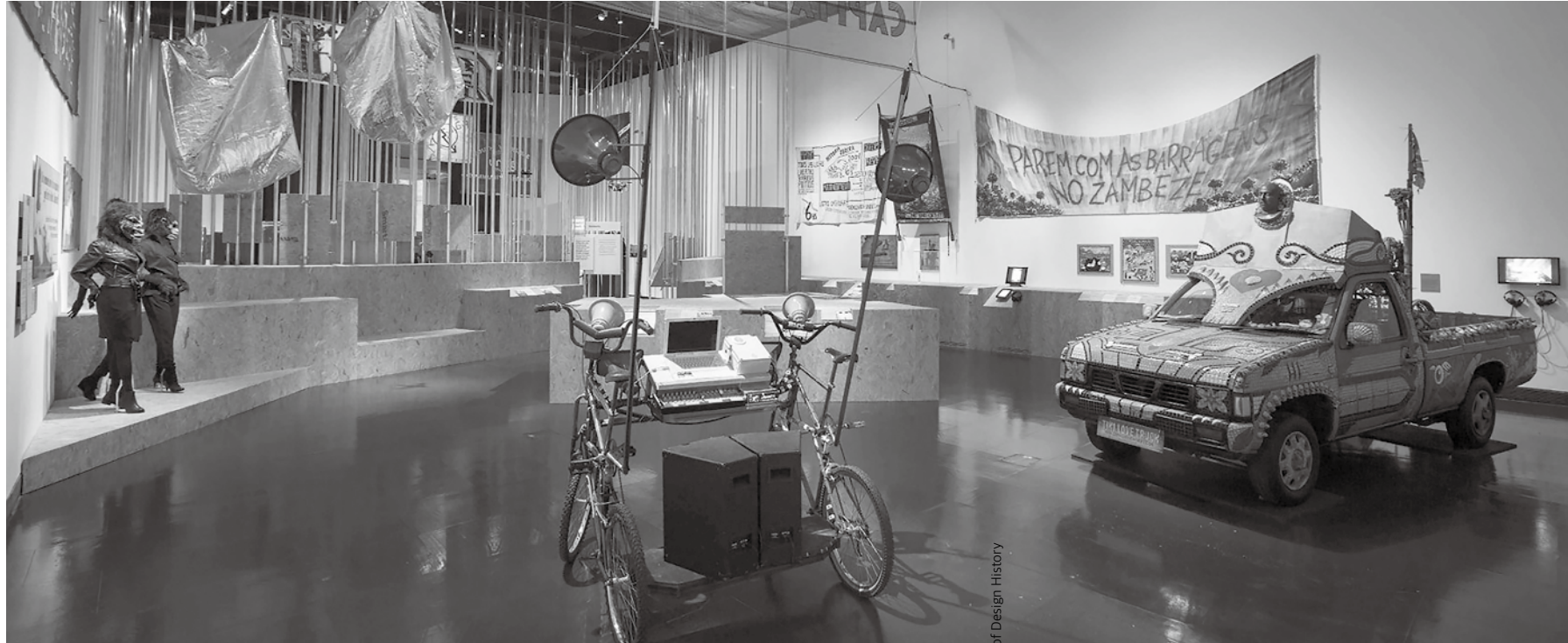
10 강현주, 「정시화의 디자인 저술에 나타난 서구 디자인사의 영향」, 『디자인학연구: Archives of Design Research』, 32권 3호, (한국디자인학회, 2019), p.168

11 문화사적 접근에 의한 한국 디자인 연구는 다음을

참조한다.: 조현산·이옥분·한국디자인역사문화연구회, 『서울 디자인15풍경』, (국민대학교출판부, 2013), 조현신, 『일상과 감각의 한국디자인 문화사』, (글항아리, 2018), 메타디자인연구실, 오창섭, 『아버지의 자동차』, (어문학사, 2016), 최범, 『한국디자인과 문화의 전환』, (안그라픽스, 2019)

12 스펠 스피커, 『빅 아카이브』, 이재영, (홍디자인, 2013), p.60

13 Schellenbert, *Modern Archives: Principles and Techniq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6), p.13



[그림 1] '저항하는 사물들' 전시장 전경 ©V&A

불연속성을 인정하면서 이를 다른 방식으로 들여다보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 지점에서 '관찰'이라는 제스처가 지금의 역사 연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다. '관찰'은 새로운 상황을 발견하고, 여러 가지 모호한 지점을 밝혀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소개할 전시 기획 사례들은 '관찰' 방법론을 적용한 역사 연구와 큐레토리얼 실천의 통합을 보여준다.

2.2.1. 재역사화를 촉구하는 참여관찰 - '저항하는 사물들(Disobedient Objects)'

전시 기획과 역사 연구는 때로 길항적 관계에서 서로에게 의식적으로 개입해왔다. 이 과정에서 저자(큐레이터)의 해석은 주로 아카이브를 선택하거나 배제하는 방식 혹은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전시가 큐레이터, 참여작가, 관객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대화적 공간이자 담론 과정을 활성화하는 잠재성'¹⁴을 품게 되면서, 인터뷰 텍스트·담론 분석, 인류학적 연구 등 다양한 학제적 방법론이 도입되고 있다.

일례로 영국 런던의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에서 2014년 열린 전시 '저항하는 사물들'(2014.7.26-2015.2.1)이 있다. 이 전시는 70년대부터 최근까지 특정 지역은 물론이고 초국가적으로 일어났던 여러 사회운동 현장에서 발견한 물질문화의 면면을 다루고 있다. 특히, 제도권 안에 있는 미술관이나 미술사가 서술하지 않았던 사회운동에 주목하였다.

전시의 주요 방법론은 '참여적 행동 연구'이다.¹⁵ 이 방법론은 인류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를 의미한다. 이 전시는 그러나 지리적, 정치적, 제도적 상황으로 인해 완전한 참여적 행동 연구를 수행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참여'와 '관찰'이라는 실천은 이 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14 폴 오닐, 『동시대 큐레이팅의 역사: 큐레이팅의 문화, 문화의 큐레이팅』, 변현주, (더플로어플랜, 2019), p.129

15 Catherine Flood & Gavin Grindon, *Disobedient Objects*, (London: V&A Publishing, 2014), p.24

도그마(교리)처럼 전시 전반에 작동했다.

전시 기획과 연구의 주체는 미술관 큐레이터들만이 아니었다. 사회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관찰자면서 동시에 피관찰자가 되었고, 전시를 기획하고 구성해 나가는 큐레토리얼 실천에 함께했다. 리서치 과정은 참여자들에게 공유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내용을 스스로 구성하고 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결국 전시는 '참여와 방해와 가능성의 열린 결말이 누적된 과정'¹⁶을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역사 쓰기가 가능했다.

그러나 전시 기획 초기 단계에서 대부분의 참여자는 자신들이 고안한 여러 즉석 제작물들이 미술관에 전시되는 것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¹⁷ 사회운동의 도구로 사용된 사물들이 예술사나 디자인사 맥락에 억지로 짜 맞춰져서 본래의 의도가 왜곡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에 담당 큐레이터들은 이러한 제작물들이 미술관으로 들어오는 시도 자체가 기관 비평이 될 것이라며 그들을 설득했다.¹⁸ 여러 이유로 제도권의 승인을 받지 못했던 사물들이 미술관에 소개되는 순간은 새로운 역사 쓰기가 실천되는 순간이기도 했다.¹⁹

2.2.2 구술사를 큐레이팅하기 - '올림픽 이펙트: 한국 건축과 디자인 8090'

“역사는 말없는 자들을 말하게 한다. 역사는 말하게 하는 운동이다.”²⁰

2020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열린 '올림픽 이펙트: 한국 건축과 디자인 8090(이하 올림픽 이펙트)'(2020.12.17-2021.4.11)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건축과 디자인 안팎의 변화를 직능의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시는 큐레이팅과

예술적 실천의 통합이라는 기획 실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전시 2부 '디자이너, 조직, 프로세스'에 소개된 88서울올림픽 전후 건축, 디자인 영역에서 활동한 9인²¹의 영상 인터뷰는 '관찰'과 '면담'이라는 구술사 방법론이 쓰였다. 구술사(oral history)는 관찰과 만남 그리고 말하기라는 동사적 과정과 이에 대한 기술적 방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서술된 역사를 모두 포함한다. 한국에서는 구술사 연구가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급변하는 동시대의 경험이 사라지기 전에 서둘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요구로 인해 촉발되었다.²²

구술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해석을 덧붙여 말로 풀어냄으로써 연구에 개입하고 새로운 역사 쓰기에 동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구술-면담 기록은(V&A의 '참여 관찰'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범주 안에 복속된다고 보는 시선이 잔재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들조차 공통된 사회적 체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것을 제외하기보다는 "개인적 체험과 사회적 경험이 어떻게 상호 관련되고 어떤 지점에서 어긋나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통해서 양자의 관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²³하려는 연구가 필요하다.

인터뷰 영상이 송출된 모니터 오른쪽에는 다시 여러 모니터에서 선우훈 작가의 신작 <캐릭터라이즈>라는 디지털 드로잉이 전시되었다. 앞서 인터뷰를 했던 디자이너와 건축가들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대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그들의 삶에 주요한 변곡점들이 생겨났음을 보여주는 타임라인 웹툰이었다. 작가는 88서울올림픽 전후의 시각 문화 현장을 각자의 방식으로 경험해온 각 개인의 구술사를 참고하여 자신의 관점에서 그것을

16 폴 오닐, 같은 책, p.129

17 Catherine Flood: *Escaping the Archives* in ifa seminar, (2018), <https://www.youtube.com/watch?v=zm6uybjAUc>, (2021.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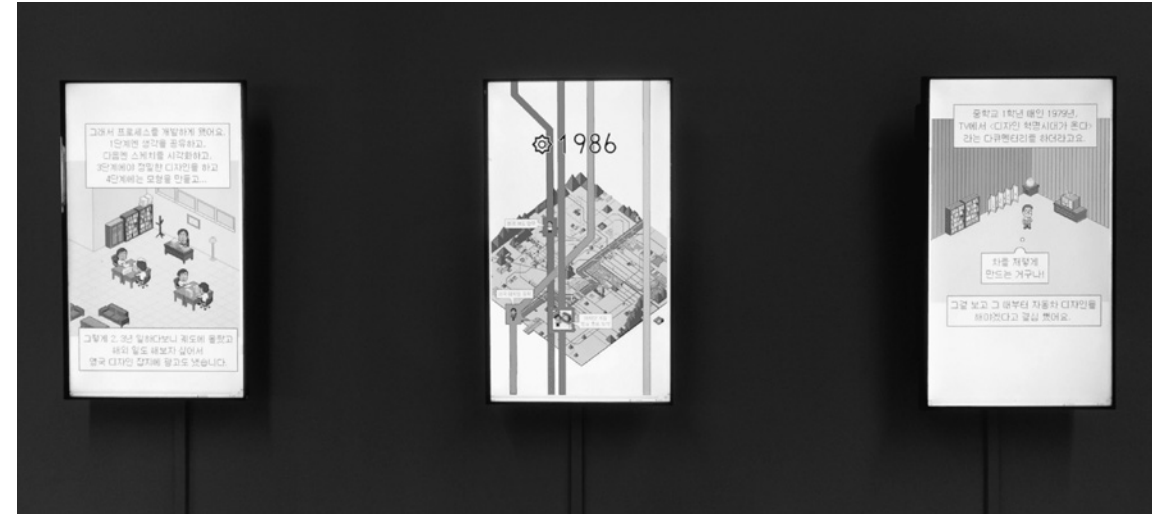
18 Catherine Flood: *Escaping the Archives* in ifa seminar, (2018), 같은 웹사이트, (2021.3.27)

19 행동주의 시각 물질문화의 부산물들은 서서히 박물관의 문턱을 넘었다. 미적 가치에 대한

감식(connoisseurship)을 거쳐야 하는 박물관 소장품에서 프린트물과 포스터를 '보조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한 것이 계기였다.

20 자크 랑시에르, 『역사가, 문학, 그리고 전기, 문학의 정치』, 유재홍, (인간사랑, 2011), p.270

21 인터뷰이들은 다음과 같다: 시각디자인 영역에서 활동했던 조현주, 석금호, 박영신, 산업디자인 분야의 구상, 은병수, 정국현, 그리고 건축의 임진우, 조찬원과 도시설계 분야 전문가 이민성



[그림 2] 선우훈, <캐릭터라이즈>, 2020 ©국립현대미술관

22 박현수,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일-민중생활사의 기록과 해석』, 『20세기 한국 민중의 구술자서전 1 어민 편: 잔물, 단물』, (소화, 2005), p.24: 매일 없어지는 물증과 증인은 우리에게 탁상의 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23 허양란, 『한국 구술사의 현황과 대안적 역사쓰기』, 『역사비평』, 2호 (역사문제연구소, 2013), p.321

재해석한 픽셀 그래픽을 제작해냈다.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이벤트에 대한 공통의 사회적 경험 이면에 있는 개개인의 상황과 욕망의 기억을 전시 안으로 초대한 큐레이터들은 이를 다시 재매개화하고 해석하는 예술 작업을 작가(선우훈)에게 의뢰했다. 이처럼 큐레토리얼 연구는 역사 연구를 예술적 실천과 통합하거나, 다양한 기획 실천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는 역사 연구에서 미처 기술하지 못했던 내밀하고 다면적인 역사의 빈틈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독자와의 소통을 돕는다.

3. 맺음말

앞서 큐레이팅 사례들은 관찰이 본래 상관관계를 말해준다. 이러한 상관적 관찰이 디자인사와 큐레토리얼 실천에 시사할 수 있는 가치는 환원주의적이거나 결정론적 역사관을 지양하는 태도일 것이다. 일반적 연구의 형식과 마찬가지로 역사 연구에도 일종의 '아크 플롯(arch-plot, 이상적인 구조)'이 존재한다. 그러나 새로운 역사 연구와 글쓰기를 위해 상관적 관찰을 허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유연성에 결론을 맡긴다는 의미가 된다. 모든 사실의 역사성에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은 없다. '상관적 관찰'식 역사 연구의 전략은 역사를 기술적으로 편재하고 올릴 수 있는 과학적이고 확실한 것으로 보려는 욕망의 반대에 놓인다. 이는 역사를 아름다운 유기체적 창조물로 보는 생기론적 관점과도 연결된다.

미술평론가 이기원은 지난 'W쇼: 그래픽 디자이너 리스트'(2017)의 전시 리뷰에서 선정된 디자이너의 목록을 두고 '둘에 새긴 기념비가 아니라 구글 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폼은 구성원들 누구나 양식에 새로운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역사 연구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언제든 추가나 수정이 가능하다는

열린 관점을 수용하게 된 역사는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으로 역사를 전시로 기획 실천한다는 것은 "역사를 처음으로 구성하는 혹은, 더 미학적으로 말하면, 가시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디자인계는 디자인사 연구가 무엇이며, 다른 유사 분야의 연구 또는 디자인학 연구의 하위 분야와 어떻게 구별되는 지점에 있는지 충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디자인사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구글 폼 같은 오늘날의 역사 쓰기에는 우문일지도 모르겠다. 그보다 '디자인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갖고, 학제나 이론-실천 사이를 교차하는 역사 서술의 다양한 지형 그리기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이 글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역사 연구의 방법론인 '상관적 관찰'을 통해 큐레토리얼 실천 가능성을 확장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새로운 연구와 글쓰기'를 모색하고 있는 한국디자인사학회가 연구와 실무 외에도 다양한 기획 활동을 포용하는 열린 연구 현장이 되길 앞으로도 기대한다. 🎧

참고문헌

- 메타디자인연구소, 오창섭, (2016), 『아버지의자동차』, 어문학사
- 박현수, (2005),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일-민중생활사의 기록과 해석』, 『20세기 한국민중의 구술자서전 1 여민 편: 짚물, 단물』, 소화
- 윤여경, (2016), 『역사는 디자인된다』, 민음사
- 조현신·이옥분·한국디자인역사문화연구회, (2013), 『서울 디자인15풍경』, 국민대학교출판부
- 조현신, (2018), 『일상과 감각의 한국디자인문화사』, 글항아리
- 최범, (2019), 『한국디자인과 문화의 전환』, 안그라픽스
- 니콜라우스 페브스너, (1986), 『근대디자인의 개척자들』, 서치선·이권영, 대신기술
- 레이너 베넬, (1981), 『제1기계 시대의 이론과 디자인』, 윤재희, 지연순, 세진사
- 스펀 스피커, (2013), 『빅 아카이브』, 이재영, 흥디자인
- 시마다 아쓰시, (2003), 『디자인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김난주, 디자인하우스
- 자크 랑시에르, (2011), 『역사가, 문학, 그리고 전기, 문학의 정치』, 유재홍, 인간사랑
- 존 헤스켓, (2004), 『산업디자인의 역사』, 정무환, 시공아트
- 페니 스파크, (2003), 『20세기 디자인과 문화』, 최범, 시지락
- Catherine Flood & Gavin Grindon, (2014), 『Disobedient Objects』, London: V&A Publishing
- Schellenbert, (1956), 『Modern Archives: Principles and Techniq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강현주, (2019), 『정시화의 디자인 저술에 나타난 서구 디자인사의 영향』, 『디자인학연구: Archives of Design Research』, 32권 3호, 한국디자인학회
- 김상규, (2021), 『21세기 전시에서 20세기를 기리는 방법』, 『Extra Archive: 디자인사연구』, 1권 1호, 한국디자인사학회
- 최범, (2021), 『디자인사 연구의 과제와 방법: 왜, 무엇을 어떻게?』, 『Extra Archive: 디자인사연구』, 1권 1호, 한국디자인사학회
- 허양란, (2013), 『한국 구술사의 현황과 대안적 역사쓰기』, 『역사비평』, 2호, 역사문제연구소
- Clive Dilnot, Lilian Sanchez-Moreno, (2019), "John Heskett's Industrial Design: An Interview at Middlesex Polytechnic, 1981", 『Design Issues』, MIT, Volume 35, Number 2, Spring
- 이기원, (2018), 「<W쇼> 리뷰」, 『월간디자인』 3월호, 디자인하우스
- 전시서문, (2018), 『미장센: 이미지의 역사』, 국립현대미술관
- Catherine Flood, (2018), 『Escaping the Archives in ifa seminar』, <https://www.youtube.com/watch?v=zm6uylbjAUc>, (2021.3.27)